



#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 요약

#### 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미국 Avian influenza human infection in USA

미국 조류인플루엔자 A(H5N1)형 인체감염 발생 관련 H5N1 바이러스 2종에 대한 위험 평가(출현 가능성 및 공중보건 영향) 결과 종합 위험도 '중간(moderate risk)'으로 평가

- 美CDC는 '24년부터 미국 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A(H5N1)형 인체감염 사례(70명 발생, 1명 사망) 기반으로 clade 2.3.4.4b 계열 바이러스 2종(A/California/147/2024, A/Washington/239/2024)에 대한 인플루엔자 위험 평가 실시 결과 2종 모두 위험 수준 '중간(moderate risk)'으로 발표함(5.2.)
  - A/California/147/2024는 B3.13 유전자형으로 미국 내 젖소(dairy cattle)에서 유행 중인 바이러스와 유사하며, A/Washington/239/2024는 D1.1 유전자형으로 야생조류 및 가금류에서 주로 발견되어 가금류 노출자 사이에서 산발적 인체감염이 발생한 사례와 관련 있음
  - A/California/147/2024는 출현 가능성(emergence risk)에서 평균 5.59점, 공중보건 영향(public health impact)에서 5.91점을 받았으며, A/Washington/239/2024는 각각 5.21점과 6.00점으로 평가되어 모두 중간 위험 수준 범위(4.0~7.9)에 해당하였고, 팬데믹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대비 필요성을 시사함
-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으나, 고위험군(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여부 등 확인 권고
  - 해당 고위험군에게 10일 이내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이나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 권고

#### 2. 탄저, 태국 Anthrax in Thailand

태국에서 동물 접촉 관련 탄저 환자 1명 발생 후 3명 추가 확진되어 총 4명 확인(사망 1명)

- 태국 묵다한(Mukdahan) 주 돈탄(Don Tan) 지역에서 탄저 환자 4명(사망 1명) 발생을 보고함
  - 종교행사 관련으로 도축한 소를 요리하지 않은 채 섭취한 53세 남성이 탄저 확진 및 사망(25.4.30.)
  - 최초 환자와 함께 종교행사 관련 소 도축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 추가로 확진됐고(5.2.), 초기 환자의 접촉자 관리 중 2명이 확진(5.4., 5.6.)되어 현재까지 탄저 환자 총 4명 발생을 보고함
  - 2017년 2명 발생 후 약 8년 만에 태국에서 탄저 환자 발생했으며, 태국 보건당국은 탄저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의 주의를 촉구하고 가축 방역조치를 강화함
- 태국 등 최근 탄저 발생 보고된 지역을 방문할 경우 현지 보건당국의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동물 접촉, 익히지 않은 고기 섭취 등은 삼가할 것을 권고

###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부르키나파소 Zika virus disease in Burkina Faso

#### 부르키나파소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최초 사례 발생(최근 해외 여행력 없는 6세 여아)

- 부르키나파소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최초 확진 사례 보고
  - '25년 4월 17일 부르키나파소 보건부는 중부 고원지역 지니아레 타운(Ziniare town)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 1명 발생 보고
  - 해당 사례는 6세 여아로 처음에 뎅기열 의심되었으나 뎅기열 신속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되고 이후 국가 바이러스 표준실험실(NRL-FHV) PCR 검사에서 지카바이러스 양성 확인
  - 환자는 증상 발생 전 15일 동안 해외 여행력 없었으며, 치료 후 회복되어 퇴원
  - 부르키나파소 보건부는 매개체인 숲모기의 높은 분포도 및 지역 보건 상황을 고려하여 전파 위험을 높음으로 평가하고 보건 기관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강화 촉구 및 국민 인식 제고 강조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예방 백신이 없어 유일한 예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으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 여행 시 모기 기피제·모기장 사용, 긴 소매·긴바지 착용할 것을 권고

### 4. 벨리열, 미국 Valley Fever in USA

#### '2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벨리열 발생이 '24년 동기간 대비 3.7%, '23년 동기간 대비 84% 증가

- '25년 1~3월 캘리포니아 주 벨리열 발생 수는 3,123명으로 '24년 동기간 3,011명보다 3.7% 증가하였으며, '23년 동기간(발생 1,701명)보다 약 84% 증가함
  - 특히 '24년 1~3월 발생 건수 3,011명은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기록이었으나 '25년 동기간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음
  - 주요 발생지역은 컨 카운티(906명), 로스앤젤레스 카운티(367명), 프레즈노 카운티(277명) 등이었으며, 몬터레이 카운티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배, '23년 동기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217명('24년 80명/'23년 22명)이 집계되었음
- 주로 미국 남서부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해당 지역 방문 시 되도록 토양 접촉 활동을 피하고, 건설 현장 등 먼지가 많은 장소는 피할 것을 권고

### 5. 웨스트나일열, 미국 West Nile Fever in USA

#### 미국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의 웨스트나일열 '25년 첫 사례 발생 보고

- 미국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에서 '25년 첫 번째 웨스트나일열 감염 사례 발생 보고함
  - '25년 5월 1일 모바일 카운티 보건부는 '25년 첫 번째 웨스트나일열 환자 발생 상황을 발표함
  - '24년 미국에서 웨스트나일열 감염 사례는 1,466명(사망 49명) 발생하였고 이 중 신경계 침습 질환 사례는 1,063명임. 모바일 카운티에서는 웨스트나일열 감염 사례 6명 발생 보고함
  - 모기로 전파되는 뇌염의 위험은 미국에서 8월부터 초가을까지 높으며, 모바일 카운티 매개체 관리국은 발생 인근 지역에 살충제 살포를 늘리고 방문 조사할 예정, 또한 성충 모기를 포획하여 웨스트나일열 감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임
- 미국, 유럽 내 웨스트나일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 국가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여행 후 발열, 오한, 허약감, 두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권고

## 6. 황열/백일해/렙토스피라증, 에콰도르 Yellow Fever/Pertussis/Leptospirosis in Ecuador

### 에콰도르에서 '25년 황열 4명 발생, 백일해 어린이 환자 증가, 렙토스피라증 어린이 사망 8명 발생

- 에콰도르의 사모라친치페(Zamora-Chinchipe) 주 아마존 지역에서 황열 환자 4명 발생, 에콰도르에서 백일해 환자는 1세 미만 영유아에서 최소 300명, 1~4세에서 38명이 보고됨. 한편 '25년 2월부터 4월 동안 모로나 산티아고(Morona Santiago) 주 타이샤(Taisha) 지역의 아마존 원주민 사회에서 원인 불명질환으로 어린이 8명이 사망한 질병은 렙토스피라증으로 밝혀짐
  - 에콰도르 보건당국은 '25년 5월 12일부터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에서 10일 이상 체류한 자 및 해당 국가에서 온 방문자를 대상으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백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5월 5일부터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 60일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현재 국내에서 황열이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남미 등 황열 유행지역을 여행하는 방문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백신접종 할 것을 권고
- '25년 국내 백일해 환자 발생 수는 총 3,944명(5.11.기준)으로 월간 발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멕시코, 일본 등에서 백일해 발생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여행 전 백신접종 확인 (학령기 아동 대상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 및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 권고) 및 여행 중 백일해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준수를 권고
- '25년 국내 렙토스피라증 환자 수는 총 11명(5.11.기준)이 보고되었으며,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등에 노출 시 상처 난 부위를 통해 전파되므로 고여있는 물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복 (특히 장화)을 착용하고 농작업 및 수해복구 등의 작업 후 발열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

# 1.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미국 Avian influenza human infection in USA

## 발생 상황

- 美CDC는 '24년부터 미국 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A(H5N1)형 인체감염 사례(70명 발생, 1명 사망) 기반으로 clade 2.3.4.4b 계열 바이러스 2종(A/California/147/2024, A/Washington/239/2024)에 대한 인플루엔자 위험 평가 실시\* 결과 2종 모두 위험 수준 '중간(moderate risk)'으로 발표함(5.2.)<sup>1)</sup>

\* Influenza Risk Assessment Tool, IRAT: 美CDC와 전 세계 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이 개발한 평가 도구로써 사람 간 전파사례는 없으나, 동물에서 순환 중인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가 감염병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emergence) 및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public health impact)을 정성적으로 평가함<sup>2)</sup>

- 美CDC는 '24년부터 미국 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A(H5N1)형 인체감염 사례(70명 발생, 1명 사망) 기반으로 clade 2.3.4.4b 계열 바이러스 2종(A/California/147/2024(B3.13 유전자형), A/Washington/239/2024(D1.1 유전자형))에 대한 인플루엔자 위험 평가 실시\* 결과 2종 모두 위험 수준 '중간(moderate risk)'으로 발표함(5.2.)

\* 美CDC와 전 세계 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이 개발한 인플루엔자 위험평가 도구(Influenza Risk Assessment Tool, IRAT): 사람 간 전파사례는 없으나, 동물에서 순환 중인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감염병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emergence) 및 공중보건에 미칠 영향(public health impact)을 정성적으로 평가함. IRAT 점수는 바이러스의 유전적 특성, 사람-동물 감염 사례, 면역 반응, 전파력, 중증도 등 10개 핵심 항목을 전문가들이 점수화하고, 각각의 항목은 출현 가능성과 공중보건 영향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도록 가중치를 적용해 최종 점수가 계산되며 위험도를 분류함(위험 수준 낮음: 1.0~3.9, 중간: 4.0~7.9, 높음: 8.0~10.0)

※ IRAT은 향후 백신개발 우선순위 결정이나 공중보건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되며, 실시간 팬데믹 예측 도구는 아님

- A/California/147/2024는 출현 가능성(emergence risk)에서 평균 5.59점, 공중보건 영향(public health impact)에서 5.91점을 받았으며, A/Washington/239/2024는 각각 5.21점과 6.00점을 평가받아 모두 중간(moderate risk) 범위\*(4.0~7.9)의 위험도로 평가함

\* '24년에 평가된 A/Texas/37/2024(emergence:5.8점/public health impact:6.1점)와 유사한 수준

- 두 바이러스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인구 면역(Population Immunity) 항목에서는 각각 약 7.2점과 7.0점을 받았고, 질병 중증도(Disease Severity and Pathogenesis)와 유전자 분석(Genomic Analysis) 항목에서도 모두 6점 내외의 유사한 점수를 기록하여, 병원성과 팬데믹 관련 유전자 마커의 수준 역시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다만, 인체 감염(Human Infections) 항목에서는 A/California/147/2024가 5.8점으로 A/Washington/239/2024의 4.8점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어, 실제 미국 내 보고된 인체 감염 사례가 더 많고 구체적인 진단 사례가 확인되었음을 반영함. 반면에, 동물 감염(Infections in Animals) 항목에서는 A/Washington/239/2024가 6.3점으로, 주로 가금류를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광범위하게 보고된 경향을 보여줌

- 이 외 항목들(예: 항원 유사성, 항바이러스 감수성, 수용체 결합력, 동물모델 전파력 등)에서도 두 바이러스 간 차이는 크지 않아, 전체적으로 유사한 팬데믹 위험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IRAT 최종 평가 결과에서도 모두 중간 수준의 위험도(moderate risk)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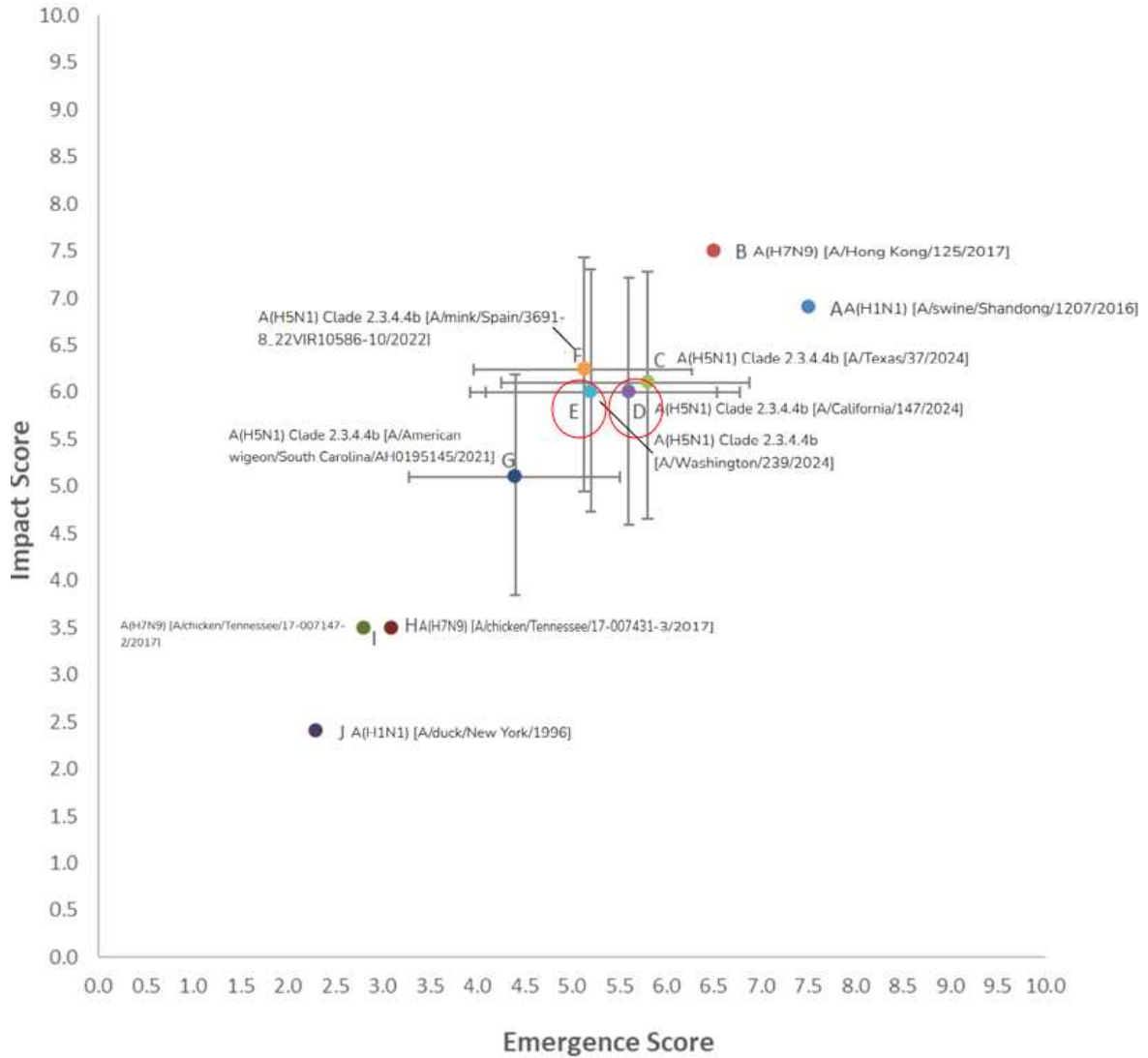


그림 1-1. H5N1 clade 2.3.4.4b 계열을 포함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IRAT 점수 비교(美CDC, '2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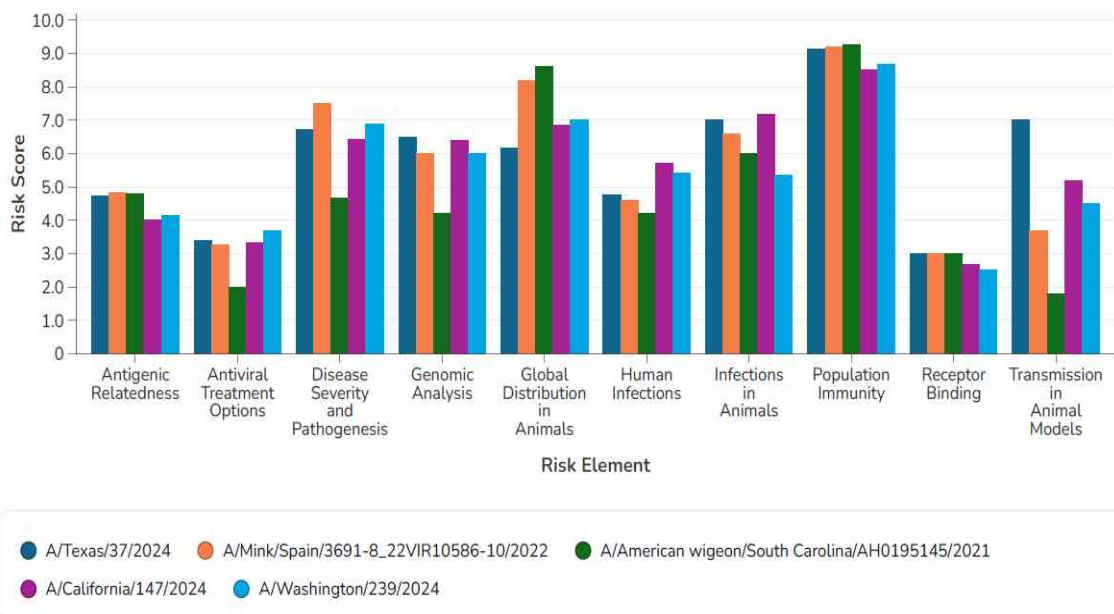


그림 1-2. H5N1 clade 2.3.4.4b 계열 바이러스의 IRAT 10가지 항목별 점수 비교(美CDC, '25.5.2.)

- A/California/147/2024 (B3.13 유전자형) 바이러스는 미국의 젓소(dairy cattle)에서 감염된 바이러스와 유사하며, 주로 낙농업 종사자들 사이에서 산발적인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짐. A/Washington/239/2024 (D1.1 유전자형)은 야생조류 및 가금류에서 흔히 검출되는 바이러스와 유사하며, 가금류 관련 작업자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됨
- 미국은 '24년 4월 전 세계 최초로 보고된 젓소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A(H5N1)형 인체감염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젓소 및 가금류\*를 통해 총 70명 발생\*\*했으며('25.5.12.기준), 이 중 1명이 사망함(미 루이지애나주, '24.12.18)<sup>3)</sup>

\* (노출 사례) 젓소농장(41), 가금류 농장(24), 다른 동물(2), 노출경로 불명(3)

\*\* (주별 발생현황) 캘리포니아(38), 콜로라도(10), 아이오와(1), 루이지애나(1), 미시간(1), 미주리(2), 오리건(1), 텍사스(1), 워싱턴(11), 위스콘신(1), 네바다(1), 오하이오(1), 와이오밍(1)

표 1-1. '24-'25년 미국 AI A(H5N1)형 인체감염 사례 주별 발생 현황 및 노출 경로(美CDC, '25.5.12. 기준)

주	노출 사례				총 사례
	상업적 가축산업 관련		다른 동물*	노출경로 불명	
	젓소 농장	가금류 농장			
캘리포니아	36	0	0	2	38
콜로라도	1	9	0	0	10
아이오와	0	1	0	0	1
루이지애나	0	0	1	0	1
미시간	2	0	0	0	2
미주리	0	0	0	1	1
오리건	0	1	0	0	1
텍사스	1	0	0	0	1
워싱턴	0	11	0	0	11
위스콘신	0	1	0	0	1
네바다	1	0	0	0	1
오하이오	0	1	0	0	1
와이오밍	0	0	1	0	1
계	41	24	2	3	70

\* 비상업적 자가사육 가축, 야생 조류 또는 기타 포유류 등과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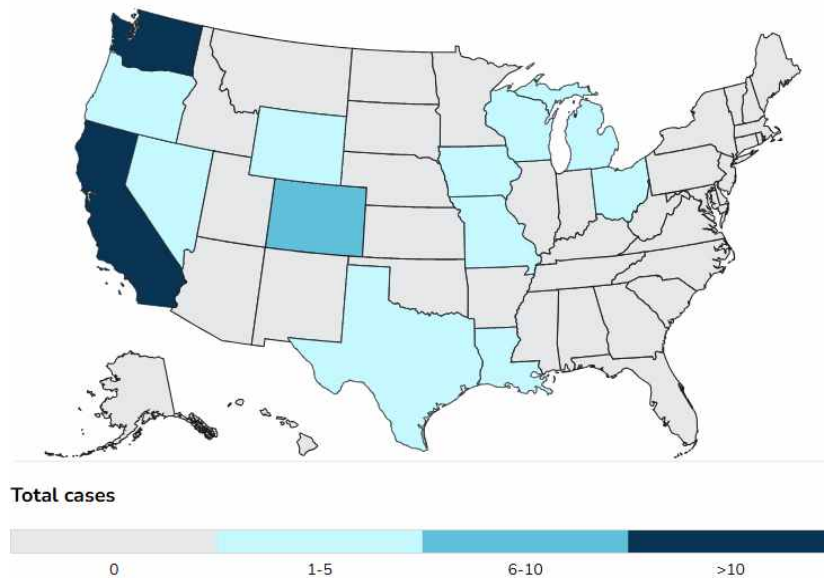


그림 1-3. '24-'25년 미국 주별 AI A(H5N1)형 인체감염 발생 현황(美CDC, '25.5.12. 기준)

## 상황 평가

· 美CDC는 IRAT\* 평가 결과를 통해 미국에서 보고된 H5N1 clade 2.3.4.4b 계열의 두 바이러스 (A/California/147/2024 및 A/Washington/239/2024)는 모두 중간 수준의 팬데믹 위험(moderate risk)을 나타냈으며, 모두 인체 내 면역이 거의 없어 감염 시 공중보건학적 영향은 클 수 있으나,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AI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으나, 최근 국외 발생 사례들을 바탕으로 고위험군(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여부 등 확인, 해당 고위험군에게 10일 이내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이나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 권고

· 美CDC는 IRAT\* 평가 결과를 통해 미국에서 보고된 H5N1 clade 2.3.4.4b 계열의 두 바이러스 (A/California/147/2024 및 A/Washington/239/2024)는 모두 ‘중간’ 수준의 팬데믹 위험(moderate risk)을 나타냈으며, 모두 인체 내 면역이 거의 없어 감염 시 공중보건학적 영향은 클 수 있으나 현재까지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인체감염 사례 지속 감시 및 동물 내 유전자 변화 추적을 지속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위험 수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美CDC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동물에서 광범위하게 유행 중이지만 지속적인 사람 간 전파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일반인에 대한 위험도는 ‘낮음’ 수준으로 유지하되, 노출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의 위험 수준은 ‘보통~높음’으로 유지 중임(‘25.2.28.’<sup>4)</sup>)

·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AI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으나, 최근 국외 발생 사례들을 바탕으로 고위험군(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고위험군은 10일 이내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이나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라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 권고<sup>5)</sup>

1) Results of Influenza Risk Assessment Tool (美CDC, '25.5.2.)

2) Influenza Risk Assessment Tool (IRAT) (美CDC, '24.5.9.)

3) H5 Bird Flu: Current Situation (美CDC, '25.5.9.)

4) Risk to people in United States from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A(H5N1) Viruses (美CDC, '25.2.28.)

5) 보도자료 | 24-25절기 가금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감시 강화 (질병관리청, '24.10.30.)

## 2. 탄저, 태국 Anthrax in Thailand<sup>1)2)3)4)</sup>

### 발생 상황

태국 묵다한(Mukdahan) 주 돈탄(Don Tan) 지역에서 탄저 환자 4명(사망 1명) 발생 보고('25.5.1.~5.6.), 2017년 딱(Tak) 주에서 2명 발생 후 약 8년 만에 태국에서 탄저 환자 발생

- '25년 5월 1일 태국 보건당국은 묵다한(Mukdahan) 주 돈탄(Don Tan) 지역에서 탄저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함. 환자는 53세 남성(건설근로자)으로 '25년 4월 24일 발열 및 오른손의 피부 병변으로 지역 의료기관에 내원했고, 이후 손의 병변이 검게 변하고 오른쪽 겨드랑이 림프절이 커지는 등 증상 악화로 4월 27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됨. 탄저 감염 의심 하에 실험실 검사 실시 결과 검체에서 탄저균이 확인됐고 4월 30일 사망함. 초기 역학조사에서 환자는 종교행사 관련으로 도축한 소를 요리하지 않은 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됨
- 이후 확진환자 3명이 더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4명의 탄저 환자가 보고됨. 두 번째 환자(5.2. 확진)는 첫 번째 환자와 함께 종교행사 관련 소 도축 작업에 참여했고 피부에 물집 등 병변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음. 세 번째 및 네 번째 환자는 접촉자 관리 중 5월 4일 및 6일에 각각 확진됨
- 가장 최근에 태국에서 발생한 탄저 사례는 2017년 딱(Tak) 주 매솟(Mae Sot) 지역에서 2명(사망 없음), 2000년 피짚(Phichit) 주(14명) 및 피사눌록(Phitsanulok) 주(1명)에서 총 15명(사망 없음) 발생함

### 상황 평가

- 태국 보건당국은 탄저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의 주의를 촉구하고 가축 방역조치를 강화함
- 태국 등 최근 탄저 발생 지역 방문 시 보건당국의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동물 접촉, 익히지 않은 고기 섭취 등은 삼가할 것을 권고
- 태국 보건당국은 탄저 발생 관련 접촉자 636명을 확인해 관리 중으로 538명은 7일간 감시기간이 종료됐고 나머지 98명에 대하여 피부 및 위장관계 증상 등 탄저 의심증상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 또한 대중에게 익히지 않은 고기를 먹거나 폐사한 동물을 도축 또는 접촉하는 행위는 삼가할 것을 알렸으며, 탄저 감염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으로 소, 물소, 염소, 양 접촉을 피할 것, 동물과 접촉한 경우 손과 몸을 깨끗하게 씻을 것, 식품으로 인증된 고기를 섭취할 것, 병들거나 비정상적으로 죽은 동물이 있으면 즉시 가축방역당국에 알릴 것, 의심증상 발생 즉시 의료인에게 문의할 것을 강조함. 아울러 가축 방역당국은 가축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해 도축장 소독, 소 백신 접종, 동물 검체 채취 및 검사 등을 실시함
- 우리나라도 과거에 섭취로 인한 탄저 발생이 간헐적으로 발생했지만 2000년 마지막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 사례 없음. 태국 등 최근 탄저 발생 보고된 지역을 방문할 경우 현지 보건 당국의 방역조치를 준수하여 동물 접촉, 익히지 않은 고기 섭취 등은 삼가할 것을 권고

1) 보도자료 | 탄저 주의사항 (태국 질병관리본부, '25.5.1.)

2) ABVC Disease Alert Issue No. 28 (ASEAN Biological Threat Surveillance Centre, '25.5.2.)

3) 보도자료 | 탄저 주의사항 (태국 질병관리본부, '25.5.7.)

4) ABVC Disease Alert Issue No. 30 (ASEAN Biological Threat Surveillance Centre, '25.5.7.)

###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부르키나파소 Zika virus disease in Burkina Faso

#### 발생 상황

'25년 4월 17일 부르키나파소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최초 확진 사례 보고, 해당 사례는 6세 여아로 증상 발생일 전 15일 동안 해외 여행력 없으며 회복 후 퇴원

- '25년 4월 17일 부르키나파소 보건부는 중부 고원지역 지니아레 타운(Ziniare town)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 1명 발생을 보고함<sup>1)</sup>
- 해당 사례는 6세 여아로 처음에 지니아레 의료센터에서 뎅기열 의심으로 지니아레 지역 병원 소아과 부서로 보고되었으나 뎅기열 신속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됨. 이후 보보디올라소(Bobo-Dioulasso)에 위치한 국가 바이러스 표준실험실(NRL-FHV) PCR 검사에서 지카바이러스 양성 확인되어 4월 8일 보건부로 통보됨<sup>2)</sup>
- 환자는 증상 발생 전 15일 동안 해외 여행력 없었으며, 입원 치료 후 회복되어 퇴원함



그림 3-1. '24년 5월 27일까지 현재 또는 이전에 지카 바이러스가 전파된 적이 있는 국가 및 지역(WHO, '24.5.29.)

#### 상황 평가

- 부르키나파소에서 보고된 지카바이러스 감염 최초 사례로 부르키나파소 보건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위험을 높음으로 평가하고 보건 기관 대상 감시 강화 촉구 및 국민 인식 제고 강조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예방 백신이 없어 유일한 예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으로 발생 국가 여행 시 모기 기피제·모기장 사용, 긴 소매·긴바지 착용할 것을 권고

- 부르키나파소에서 보고된 첫 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로, 부르키나파소 보건부는 사례 발생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우선순위 감시 감염병임을 강조하고 지카바이러스 매개체인 숲모기의 높은 분포도 및 지역 보건 상황을 고려하여 전파 위험을 높음으로 평가함(4.15.)
- 보건부는 보건 기관의 감시 강화 촉구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 제공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의심 사례는 보고 체계에 따른 보고, 분석을 위한 검체 채취, 지침에 따라 치료할 것을 강조함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예방 백신이 없어 유일한 예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으로 발생 국가 여행 시 모기 기피제·모기장 사용, 긴 소매·긴바지 착용할 것을 권고

1) 부르키나파소 보건부 공지 | 지니아레 지역 지카바이러스 감염 확진에 따른 감시 강화 촉구 (부르키나파소 보건부, '25.4.15.)  
 2) Africa CDC Epidemic Intelligence Report - Zika virus in Burkina Faso (Africa CDC, '25.4.30)

## 4. 뱀리열, 미국 Valley fever in USA

### 발생 상황

'25년 1~3월 캘리포니아 주 뱀리열 발생 수는 3,123명으로 '24년 동기간 3,011명보다 3.7% 증가하였으며, '23년 동기간(발생 1,701명)보다 약 84% 증가함<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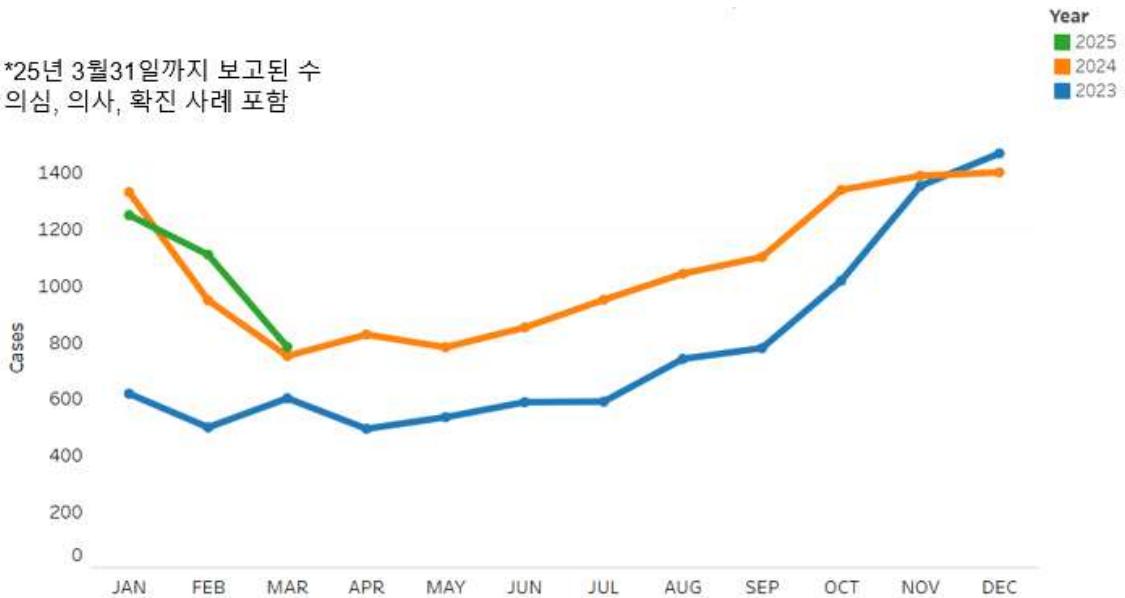
- '25년 1월~3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총 3,123명의 뱀리열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24년 동기간 3,011명 대비 3.7% 증가한 것이며, '23년 동기간 1,701명 대비 약 84%가 증가한 수치임.<sup>1)</sup> 월별 발생 현황을 보면 2월(1,103명), 3월(777명)으로 각각 전년 동월\*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24년 1~3월 발생 건수 3,011명은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기록이었으나 '25년 동기간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음

\* 24년 2월(942명), 3월(745명)

※ '23년(1,679명)/'22년(1,666명)/'21년(2,164명)/'20년(2,116명)/'19년(2,215명)/'18년(2,225명)/'17년(965명)/'16년(801명)<sup>3)</sup>

- 주요 발생지역은 컨 카운티(906명), 로스앤젤레스 카운티(367명), 프레즈노 카운티(277명) 등이었으며, 몬터레이 카운티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배, '23년 동기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217명('24년 80명 /'23년 22명)이 집계되었음

\*25년 3월31일까지 보고된 수  
의심, 의사, 확진 사례 포함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TOTAL
2025	1,243	1,103	777										3,123
2024	1,324	942	745	821	776	846	944	1,036	1,095	1,332	1,382	1,394	12,637
2023	612	493	596	488	529	582	584	735	773	1,011	1,346	1,461	9,210

그림 4-1. '23~25년 캘리포니아 주 연도 및 월별 뱀리열 발생 건수 현황(CDPH<sup>4)</sup>, '25.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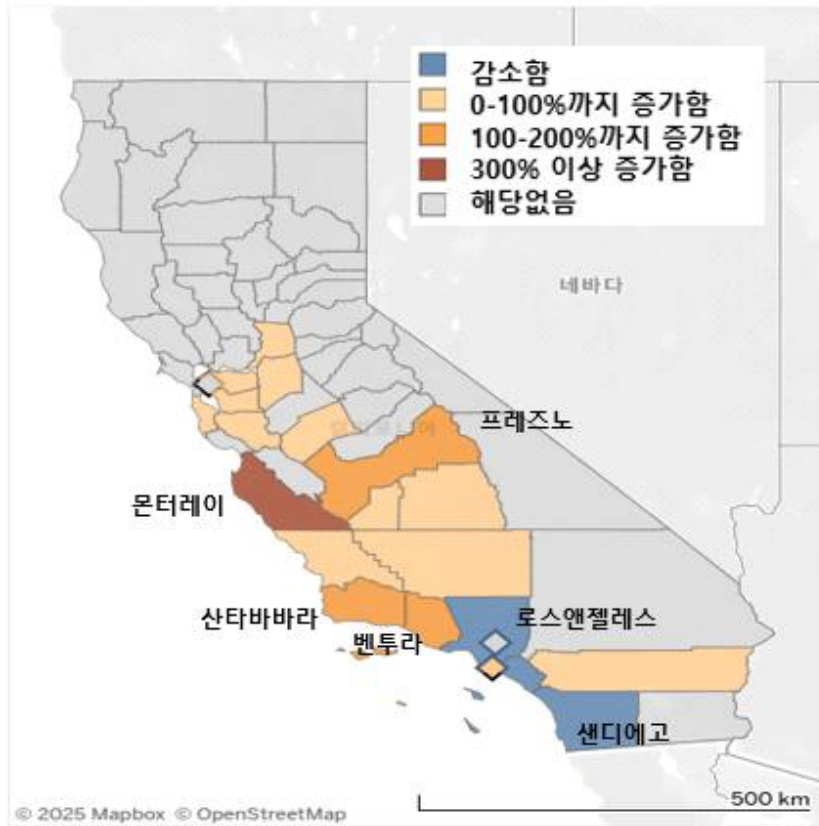


그림 4-2. 캘리포니아 주 '23~'24년 평균 대비 '25년 발생 건수 변화율(CDPH<sup>5</sup>, '25.3.31.)

### 상황 평가

- 최근 2년간 캘리포니아에서는 가뭄-강우-고온 패턴이 반복되며, 밸리열 발생이 급증하였고, '25년도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연구에 의하면 가뭄과 강우의 패턴이 발생에 영향을 미치며, 이와 함께 토양관련 활동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주로 미국 남서부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해당 지역 방문 시 되도록 토양 접촉 활동을 피하고, 건설 현장 등 먼지가 많은 장소는 피할 것을 권고함

- 최근 2년간 캘리포니아에서는 가뭄-강우-고온 패턴이 반복되며, 밸리열 발생이 급증하였고, '25년도에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22년 발표된 연구<sup>6)</sup>에 의하면, 2년 이상의 가뭄 후 겨울, 강우, 그 후 건조한 여름이 이어질 경우 감염 위험이 크게 증가하며, 이전 2년이 건조했던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약 36% 이상 더 높아짐. 또한 기후 외에도 토양과 관련된 활동(건설 노동자, 소방관, 고고학자 등)으로 건조하고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 감염될 위험이 높음
- 해당 진균은 건조한 토양에서 자라며, 흙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포자가 공기 중으로 퍼져 흡입될 경우 감염될 수 있음. 감염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스스로 치유되나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나 독감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움
- 주로 미국 남서부(특히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본 감염병의 발생 또는 해외유입 사례는 보고된 바 없음. 美CDC는 해당 지역을 방문할 시 토양 접촉 활동은 가급적 피하고, 건설 현장 등 먼지가 많은 지역도 피할 것을 권고함

질병개요	〈Valley Fever(Coccidioidomycosis) <sup>7)</sup> , (美CDC, '24.4월)〉
정의	벨리열(Coccidioidomycosis)은 토양에 서식하는 균류인 <i>Coccidioides</i> 에 의해 발생하는 폐 감염증
발생지역	태평양 북서부와 미국 남서부,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생
감염경로	코시디오이데스( <i>Coccidioides</i> )의 포자를 흡입하여 감염됨 - 포자를 흡입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음 사람 간 또는 사람과 동물 간에 전파되지 않음
증상	피로, 기침, 발열,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관절통, 야간 발한, 상체 또는 다리에 발진 - 감염된 환자 중 약 5~10%: 합병증이나 만성 폐 질환으로 발전 - 약 1%: 폐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 가능. 전이 가능 부분은 피부, 뼈, 관절, 뇌 증상있는 사람(약 40%)은 일반적으로 노출 후 1-3주 후 발생
진단	주로 IgM 및 IgG 항체를 검출하는 혈청학적 검사 배양검사 및 현미경 검사도 사용
치료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치료없이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호전됨 심각한 감염이나 신체 다른 부위 전이 시 항진균 약물 치료 및 입원 필요
예방	건설 현장이나 발굴 현장 등 먼지가 많은 지역은 피할 것 먼지 폭풍이 칠 때는 집 안에 머물고 창문을 닫을 것 원에 등 토양과 접촉하는 활동은 피할 것 피부 부상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을 것

※ 벨리열(Valley Fever, Coccidioidomycosis)은 곰팡이균에 의한 진균증이고, 리프트 벨리열(Rift Valley Fever)은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의 일종임

1) Coccidioidomycosis-USA:(California) Weather-related increases cases (ProMED, '25. 4.29.)  
 2) California reports sharp rise in valley fever cases for first three months of 2025 (LA Times, '25.4.25.)  
 3) Valley Fever in California Year-end Data Dashboard (CDPH, '24.6.18.)  
 4) Provisional Valley Fever Cases by Month and Year, California, 2023-2025 (CDPH, '25.3.31.)  
 5) Percent Change in Cases from 2023-2024 Average to 2025 (CDPH, '25.3.31.)  
 6) Effects of precipitation, heat, and drought on incidence and expansion of coccidioidomycosis in western USA: A longitudinal surveillance study (Lancet Planet Health, '22.10.)  
 7) Valley Fever (About Valley Fever, Symptoms, and Clinical Overview of Valley Fever) (美CDC, '25.1.31.)

## 5. 웨스트나일열, 미국 West Nile Fever in USA

### 발생 상황

'25년 5월 1일 미국 앨리배마주 모바일 카운티에서 '25년 첫 번째 웨스트나일열 감염 사례 보고, 모바일 카운티 매개체 관리국은 발생 지역 인근에 살충제 살포를 늘리고, 성충 모기를 포획하여 감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임

- '25년 5월 1일 모바일 카운티 보건부는 '25년 첫 번째 웨스트나일열 감염 사례 확인을 보도했으며, 환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sup>1)</sup>
- '24년 미국에서 웨스트나일열 환자는 1,466명(사망 49명) 발생하였고 이 중 신경계 침습 질환 사례는 1,063명. 앨리배마주에서는 34명이 발생했고 그 중 6명이 모바일 카운티에서 보고됨<sup>2)</sup>
- 모바일 카운티 매개체 관리국은 발생 인근 지역에 살충제 살포를 늘리고 방문 조사할 예정이며 성충 모기를 포획하여 웨스트나일열 감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임
- 모바일 카운티 보건부는 야외활동 시 모기에 노출을 최소화, 모기 기피제 휴대, 고인물 제거하여 모기 번식 막기, 집에 방충망 설치 등을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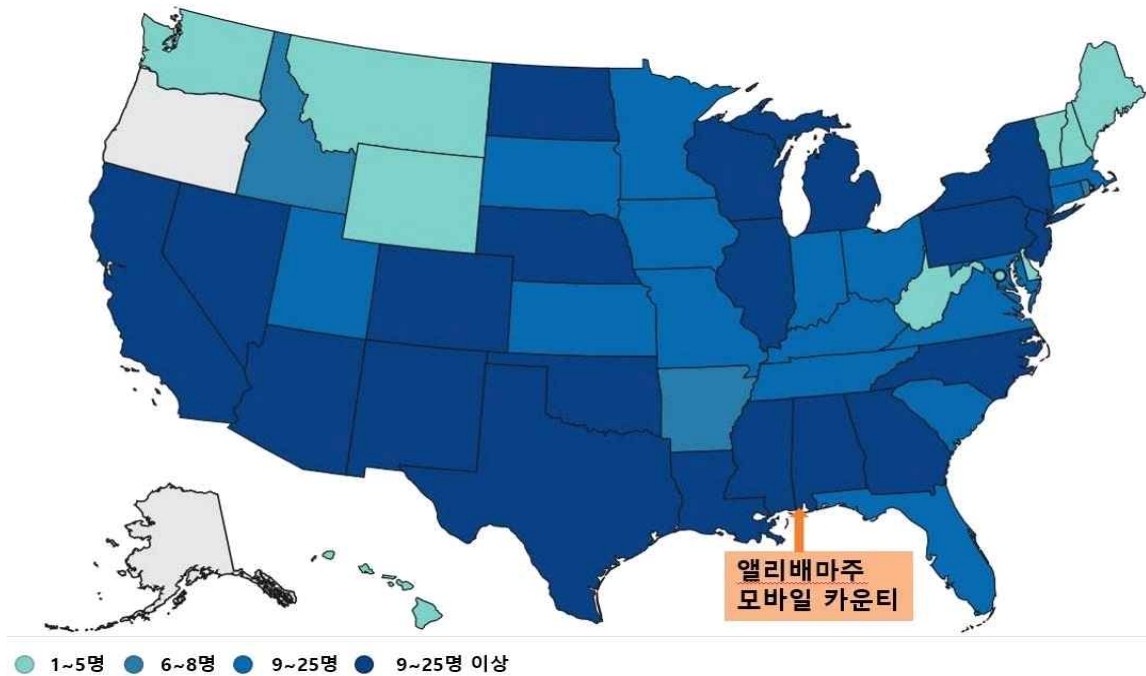


그림 5-1. '24년 미국 주별 웨스트나일열 감염 사례 발생 분포(美CDC, '25.1.14.)

### 상황 평가

- 미국에서 8월부터 초가을까지 모기로 전파되는 뇌염의 위험이 높음
- 미국, 유럽 내 웨스트나일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 국가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여행 후 발열, 오한, 허약감, 두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

- 우리나라에서 웨스트나일열은 2012년 해외유입 사례 최초 보고 이후 현재까지 국내 발생 보고는 없으며, 국내에 웨스트나일열 매개 모기가 서식 중이나 현재까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 감염 사례는 확인된 바 없음
- 질병관리청은 '24년 미국, 유럽 및 해외 주요 국가에서 웨스트나일열 등 모기매개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 사항을 안내한 바 있으며, 미국의 경우 8월부터 초가을까지 모기로 전파되는 뇌염 위험이 높으므로 해외여행객 대상으로 해외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하고 발열, 오한, 허약감, 두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함

질병개요		〈West Nile Fever〉 <sup>4)</sup>
정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감염에 의한 질환	
발생지역	아프리카, 동유럽, 서아시아, 중동, 미국 등에서 지속 발생 중임	
전파경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전파 혈액을 통한 전파(수혈감염, 장기이식, 주사바늘 찔림 사고 등) 수직감염, 주산기 감염, 수유 등	
임상 증상	- 감염된 사람들의 70~80%는 무증상임 - 신경계 비침습 질환(Non-neuroinvasive disease): 발열, 오한, 주로 허약감, 두통, 식욕감퇴, 근육통, 구역, 구토, 발진, 림프절병증, 안구통 등 - 신경계 침습 질환(Neuroinvasive disease): 수막염, 뇌염, 급성이완마비(acute flaccid paralysis) 또는 급성의 중추 혹은 말초 신경계 이상	
진단	확인 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 조직)에서 West Nile virus 분리 -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 검체(혈액, 뇌척수액, 조직)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추정 진단 - 검체(혈액, 뇌척수액)에서 특이 IgM 항체 검출	
치료	보존적 치료	
예방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주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조류 취급 시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 예방접종 없음 웨스트나일열 환자 및 병력자의 경우 증상 발현 또는 진단 후 6개월간 헌혈 금지	

1) 보도자료 | Initial human case of West Nile Virus reported for 2025 (모바일 카운티 보건부, '25.5.1.)

2) Westnile Current Year Data (2024) (美CDC, '25.1.14.)

3) 보도자료 | 미국, 유럽 내 웨스트나일열 발생, 해외여행 시 모기물림 주의 (질병관리청, '24.8.8.)

4) 2025년 바이러스성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청)

### 6. 황열/백일해/렙토스피라증, 에콰도르 Yellow Fever/Pertussis/Leptospirosis in Ecuador

#### 발생 상황

에콰도르 사모라친치페(Zamora-Chinchipe) 주 아마존 지역에서 황열 환자 4명 발생, 에콰도르에서 백일해 환자는 1세 미만 영유아에서 최소 300명, 1~4세에서 38명이 보고됨. 한편 '25년 2월부터 4월 동안 모로나 산티아고(Morona Santiago) 주 타이샤(Taisha) 지역의 아마존 원주민 사회에서 원인 불명질환으로 어린이 8명이 사망한 질병은 렙토스피라증으로 밝혀짐

#### 황열 (Yellow Fever)

-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서 황열 사례 4명이 보고되어 에콰도르 보건당국은 '25년 5월 12일부터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에서 10일 이상 체류한 자 및 해당 국가에서 온 방문자\*(1세~59세)를 대상으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함<sup>1)2)3)</sup>

※ 범미보건기구(PAHO)는 황열 공중보건 위험평가('25.2.14.)를 통해 남미 일부 지역에서 황열 확산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였으며, 에콰도르는 황열 풍토 국가 또는 풍토 지역이 있는 국가로 언급됨<sup>4)</sup>

- 황열 첫 사례가 사모라친치페(Zamora-Chinchipe) 주에서 확인된 후 에콰도르 지역보건 당국은 사모라친치페주의 야쿠암비(Yacuambi)에 위치한 916가구 모니터링, 매개체(이집트숲모기) 번식지 파악, 예방접종 캠페인 등 대응조치를 시행함<sup>5)</sup>

- 고위험군\* 중심으로 백신접종을 시행(439명)하였으며, 위험지역 방문 예정인 여행자는 최소 10일 전 백신접종 할 것을 권고함

\* 연령이 12개월~59세인 자, 광부, 농부, 가금류 종사자, 여행자 등



그림 6-1. 에콰도르 황열 환자 보고 지역(美CDC 참조, '25.1.31.)

### 백일해 (Pertussis)

- 에콰도르에서 백일해 환자는 1세 미만 영유아에서 최소 300명, 1~4세에서 38명이 보고되었음. 어린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25년 5월 5일부터 일부 주(Province)\*에 소재한 학교를 대상으로 60일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sup>2)3)</sup>

\* 과야스 주, 마나비 주, 산토도밍고데로스차칠라스 주, 피친차 주 등

### 렙토스피라증 (Leptospirosis)

- '25년 2월부터 4월 동안, 모로나 산티아고(Morona Santiago) 주 타이샤(Taisha) 지역에서 발열, 구토, 혈변, 탈수,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인 어린이 8명이 사망함.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에콰도르 보건당국은 광범위한 역학조사 진행하였으며<sup>6)</sup>, 해당 질환은 렙토스피라증으로 밝혀짐<sup>7)</sup>
- 타이샤 지역은 페루와 국경을 접한 아마존 우림으로 아추아르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은 원주민 사회에서 최소 46명이 감염되어 현재까지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힘

### 상황 평가

- 에콰도르 보건당국은 황열 예방접종 의무화, 학교에서 60일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함으로써 황열 및 백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
- 현재 국내에서 황열이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남미 등 황열 유행지역을 여행하는 방문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백신접종 할 것을 권고
- '25년 국내 백일해 환자 발생 수는 총 3,944명(5.11.기준)으로 월간 발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멕시코, 일본 등에서 백일해 발생이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여행 전 백신접종 확인(학령기 아동 대상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 및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 권고) 및 여행 중 백일해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준수를 권고함. '25년 국내 렙토스피라증 환자 수는 총 11명(5.11. 기준)이 보고되었으며, 렙토스피라증은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등에 노출 시 상처 난 부위를 통해 전파되므로 고여있는 물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복(특히 장화)을 착용하고 농작업 및 수해복구 등의 작업 후 발열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

- 에콰도르 보건당국은 황열 예방접종 의무화, 학교에서 60일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함으로써 황열 및 백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
  - 국내에서 황열이 보고된 사례는 없으나, 남미 등 황열 유행지역을 여행하는 방문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백신접종을 하고, 귀국 후 6일 이내 발열, 두통, 권태감, 두통 등의 증상 발현의 경우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함
  - '25년 국내 백일해 환자 발생 수는 총 3,944명\*(5.11.기준)으로 월간 발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멕시코, 일본 등에서 백일해 발생이 크게 증가한 상황<sup>9)</sup>으로 여행 전 백신접종 확인 (학령기 아동 대상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 및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빠짐없이 2·4·6개월에 적기 예방접종 권고) 및 여행 중 백일해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준수를 권고함<sup>10)</sup>
- \* (1월) 2,280명 → (2월) 899명 → (3월) 382명 → (4월) 331명 → (5월) 52명(5.11.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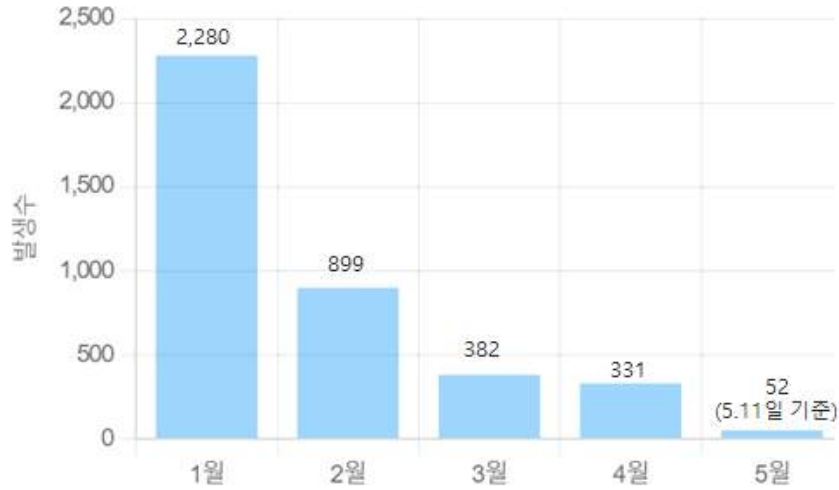


그림 6-2. '25년 국내 백일해 환자 수(감염병 포털, '25.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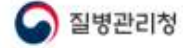
- '25년 국내 렙토스피라증 환자 수는 총 11명이 보고되었으며, 주로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토양,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 난 부위를 통해 전파되므로 고여있는 물에서 작업할 경우, 작업복(특히 장화)을 착용하고 농작업 및 수해복구 등의 작업 후 발열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함

1) Louisiana pertussis rise, yellow fever in Ecuador, polio cases in 2 countries (CIDRAP, '25.5.3.)  
 2) Ecuador under epidemiological alert for pertussis, yellow fever, and leptospirosis (MercoPress, '25.5.6.)  
 3) Pertussis(Whooping Cough) and Yellow Fever Outbreaks (에콰도르 주재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25.5.7.)  
 4) Public Health Risk Assessment related to yellow fever: implications for the Americas Region (WHO/PAHO, '25.2.14.)  
 5) Ecuador: Officials confirm yellow fever case in Zamora Chinchipe (OutbreakNewsToday, '25.4.29.)  
 6) Unknown infectious agent kills eight Ecuadorean children (MercoPress, '25.5.1.)  
 7) Équateur: huit enfants sont morts de leptospirose dans une communauté indigène (프랑스 언론보도 lefigaro, '25.5.4.)  
 8)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2급 및 3급 감염병 (질병관리청, '25.5.11.)  
 9)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제17호, 1. 백일해, 여러 국가 Pertussis in Multi-country (질병관리청, '25.4.30.)  
 10) 보도자료 | 백일해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임신부, 영유아 돌보미 등 예방접종 적극 당부 (질병관리청, '24.11.12.)

#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 홍역 예방수칙, 미리 챙기는 센스!

2024.12.5.



### 홍역 예방수칙, 미리 챙기는 센스!

⚠️ 해외여행 및 교류 증가로 국내에 유입되어 산발적 발생이 가능한 홍역, 국내 홍역 환자는 대부분 해외여행을 통해 감염되거나 홍역 예방접종(MMR) 2회 미접종!

#### 홍역이란?



기침 또는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구강 내 반점 등 발생 후 홍반성 발진 발생

#### 여행 중



사람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 2회 접종력 확인**하기  
\* 2회 모두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여행 후

의심증상(발열, 발진 등)이 생기면



입국 시에 **검역관에게 알리기**



가까운 병·의원에 **전화 연락 후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 자제 등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더 자세한 정보는?

#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결핵 ZERO, 함께해요!

**결핵 ZERO** 질병관리청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  
결핵 ZERO,  
함께해요!**



### 잠복결핵감염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몸 속에 들어온 균이 활동하지 않아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



### 활동성결핵

결핵균의 활동이 시작되어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전염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



### 다제내성결핵

주요 결핵약제(리팜핀, 이소니아지드) 2가지 모두 내성을 가지거나, 리팜핀 약제내성을 보이는 결핵으로 일반 결핵에 비해 강도 높은 치료 필요

**오늘의 결핵**

- 결핵발생률 OECD 2위 (\*2023년 기준)
- 결핵 환자 35.2명(10만명당) (\*2024년 기준)
- 결핵 환자 17,944명 = 신규 환자 14,412명 + 재발, 재치료 등 3,532명 (\*2024년 기준)
- 결핵 사망자 수 1,331명 (코로나19 제외 사망자수 1위) (\*2023년 기준)

##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사 받으세요!

**1 의결 (결핵 의심하기)**

- 기침
- 체중감소·무력감
- 식욕부진
- 발열

**2 찾결 (결핵 찾기)**

- 흉부 X선 검사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가능합니다.)

**3 완결 (결핵 완치하기)**

- 치료 (꾸준한 약물 복용으로 결핵 완치가 가능합니다.)

## 정기적인 결핵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주세요.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의료기관 종사자
- 산후조리원 종사자
- 학교 종사자
-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결핵 환자 발견부터 치료 종결까지 전주기를 관리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결핵검진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
- 결핵 역학조사반 (결핵 역학조사)
- 일치가능한 결핵 (결핵 환자 관리 사업)
- KTB-Net / K-TB-N (결핵 시스템 및 연구(DB))

## 기침=신호! 검진=보호! 치료=야호!

질병관리청 KDCA, 국립결핵병원, 지역보건소 (결핵관리운영), 대한결핵협회, STOP-TB Partnership 한국사무국,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국제결핵연구소,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 사업단, 다제내성 컨소시엄, 취약계층 진료 지원 사업 결핵안심벨트

「전 세계 감염병 동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소식> 주간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